

ESCO시장변화에 발맞춰 활성화 유도

■ 김인숙 기자(kis@energycenter.co.kr)



미국, 호주 등 외국에선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과보증제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진행단계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요건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용역사업을 통해 성과보증제 도입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지난 6월 전체 ESCO를 대상으로 성과보증제 도입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도입에 관한 관련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재 의견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내 도입모형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성과보증제도는 현행 성과배분제보다 더욱 철저한 사전진단과 더불어 정확한 성과측정 및 사후관리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성과보증에 관한 명확한 기준제시 등 정밀한 제도적 검토가 요구되며 아울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일부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시행안을 작성중에 있으며,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ESCO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도입모형을 확정하여 금년내에 도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정부측 지원방안은?

이라크전쟁에 따른 유가상승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에너지절약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원가상승에 따른 수출감소, 북핵문제 등 잇따른 악재발생으로 경기회복전망이 불투명하여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유보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침체된 투자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사용자의 금융비용부담 경감 및 투자유인을 위해 지원금리를 국고채에 연동한 변동금리체계를 고정금리체계와 동시 운영하여 3/4분기 현재 연초보다 1.25%p 인하된 연리 2.75%로 지원하고 있으며, ESCO 투자사업의 대규모

이러한 경쟁에 따른 유가상승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에너지절약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원가상승에 따른 수출감소, 복핵문제 등 잇따른 악재발생으로 경기회복전망이 불투명하여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유보하거나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침체된 투자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프로젝트 유인을 위하여 사업별 지원한도액과 부대설비 인정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설명회와 ESCO-Mart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ESCO시장 분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성과보증제 등을 통하여 ESCO투자사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SCO사업이 국내에 도입된 지 10여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간 크게 변화된 ESCO사업의 트렌드는?

최근 ESCO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조명 등 소규모 단순설비 사업이 대폭 줄어들고 열병합발전, 폐열회수, 냉난방 등 대규모 복합설비 공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2001년에 건당 평균 1억3천7백만원이 투자되던 것이 2002년에는 건당 2억8천5백만원, 금년에는 건당 3억6천2백만원이 투자되어 ESCO사업이 대형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ESCO 투자사업이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1년에는 공공부문이 전체 ESCO시장의 50%(376억원)를 차지한 데 반해 2002년에는 29%(406억원), 금년에는 18%(96억원)에 불과해 민간부에서 ESCO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소모가 큰 산업체가 전체시장의 45%(243억원, 2003년 6월말 기준)를 차지해 산업체들의 ESCO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SCO협회의 기능이 점차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협회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과 나아갈 방향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절약사업은 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 속에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이제 제도는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ESCO업계 스스로 협회를 중심

으로 자생능력을 기르는데 관심을 두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ESCO사업 도입 초기에 뜻있는 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으나 타분야의 협회에 비해 기능과 위상이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정부에서는 협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실적증명발급 및 경영상태 확인서 발급업무를 협회에 위탁하였습니다. 현재 이같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ESCO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위탁사업으로 협회가 단기간에 업계의 대표성을 확보하거나 그 위상이 높아지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ESCO업체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여 ESCO의 기술력 향상 및 공신력 제고 등 한단계 도약을 위해 가일층 노력한다면 정부로서는 협회의 발전을 위한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CO관련 정책 실무에 임하는 각오와 에너지절약산업 관계자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하신다면?

ESCO사업은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있는 경제난을 생각할 때 에너지 사용자 하여금 에너지절약형시설로 투자하게 하는 유인책으로, 가장 현실적인 국가에너지절약 정책이며, 이 제도의 확산 및 활성화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정책의 실무를 맡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ESCO와 에너지 사용자들이 마음놓고 ESCO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ESCO사업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께서도 ESCO사업의 활성화가 곧 애국하는 길임을 깨닫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